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
자료문의 : 나노융합팀장 조정아(2110-4780), 박병기 사무관(2110-4781)

한-EU "나노기술 산업화" 협력의 시동을 걸다

– 3.20일, 한-EU 나노융합산업 담당국장 첫 미팅 개최 –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한-EU간 나노기술 산업화 촉진을 위해 EU 연구혁신총국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힘

○ 김학도 지경부 신산업정책관은 제1회 한-EU 나노워크숍(3.19~20) 참석차 방한한 폰 보스(Herbert von Bose) EU 산업기술국장과 3.20일 오전 면담을 갖고,

◈ 면담 개요
- ○ 일시/장소 : 3.20(화) 08:00~10:00, 롯데호텔(소공동)
- ○ 참석자 : (한) 지경부 김학도 신산업정책관, KIST 박종구 다원물질융합연구소장 등 3명
  (EU) 폰 보스(Herbert von Bose) EU 연구혁신총국 산업기술국장 등 3명

○ 나노융합산업이야말로 향후 급격한 시장규모* 확대가 예상되는 미래 유망 산업으로,

* '20년 세계 나노융합시장은 약 2.5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(연평균 18% 성장)

○ 한-EU간 나노융합산업 협력이 성장세가 둔화되는 양국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고부가가치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함

□ 동 면담에서 지경부는 양국 정부를 중심으로 산·학·연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보교류, 기업간 협력분야, 투자사업 발굴 등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정례적인 협의체(연 1~2회) 구성을 제의

○ 우리측 제안에 폰 보스 국장 역시 공감을 표하였으며, 구체적인 구성방안은 추후 실무진 미팅을 통해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

○ 이와 더불어 양국 정부는 나노제품의 안전성, 표준화 등 나노기술 산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요 이슈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 및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

□ EU는 나노융합 에너지·환경 산업 및 나노융합 의료·제약 분야에서 경쟁력 우위에 있는 바, 양국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 및 신산업 분야 진출 등이 기대되며,

○ 특히, 작년 한-EU FTA 발효로 문턱이 낮아진 유럽시장에 우리 나노융합기업의 진출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